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은희¹⁾, 이해진²⁾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of nurses in bachelor's degree

Eun Hee Lee¹⁾, Hye-Jin Lee²⁾

요 약

본 연구는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송통신대학 간호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 143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74 ± 0.47 점, 자아탄력성 3.16 ± 0.43 점, 학업성취도 3.07 ± 0.37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F=3.45, p<.05$), 학업시간($F=3.84, p<.05$)과 학업만족도($F=4.37, p<.05$)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연령($F=3.07, p<.05$), 결혼상태($F=-2.13, p<.05$),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F=3.29, p<.05$), 학업만족도($F=3.29,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업성취도와 자아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학사학위과정 간호사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of nurses in bachelor's degree.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43 nurses in majoring Nursing Science of KNOU.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17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an score of academic stress was 2.74 ± 0.47 , ego-resilience was 3.16 ± 0.43 , and knowledge achievement was 3.07 ± 0.37 .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Received(October 17, 2018), Review Result(November 2, 2018)

Accepted(November 9,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¹⁾(Assistant professor) 16328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74, Cheoncheon-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email: leh201@dongnam.ac.kr

²⁾(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03617 Department of Nursi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diagnosis99@naver.com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 difference related to Reason of choosing bachelor's course($F=3.45, p<.05$), Study time($F=3.84, p<.05$), Learning satisfaction($F=4.37, p<.05$). Knowledge achievement was significant difference related to Age($F=3.07, p<.05$), Marital status($F=2.13, p<.05$), Reason of choosing bachelor's course($F=3.29, p<.05$), Learning satisfaction($F=3.29, p<.05$).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ego-resilience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Therefore, In order to efficient nurs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programs to reduce academic stress and to help improve ego-resilience, knowledge achievement for nurses in bachelor's degree.

Keywords :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Knowledge achievement, Nurses in bachelor's degre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면서, 치료와 간호는 더욱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간호사들은 양질의 간호제공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개개인의 능력개발차원에서 다양한 계속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된다[1]. 간호사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전공심화과정, 방송통신대학, 대학원 과정과 같은 계속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2].

기존 3년제, 4년제로 이원화 되어있던 간호교육제도가 4년제로 일원화되고 간호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취업 후에 계속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3년제 졸업 간호사들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3]. 하지만 학사학위 교육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의 81.8%가 20-30대의 가임기 여성이고, 41.6%가 기혼이며 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3], 이들은 일과 가정생활,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므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의 경우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4]. 학업 스트레스란 학업적인 문제 또는 심적인 불균형 상태에서부터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5]. 이들은 학업과 동시에 직장생활 및 가사로 인해 시간적,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고, 언제나 학업이 우선 시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학업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6].

최근 사회과학 연구영역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대두되고 있다[7].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극복에 유용한 개념이다[8].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므로 학업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9]. 선행연구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을 말한

다[10]. 학업성취도는 대학생들의 중요한 요인이며 교육의 성과로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11].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진바 있다[1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는 상호관련성은 있다고 추정되지만,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리고 다양한 학사학위과정 중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해 연구[3], 스트레스의 대처연구[13], 웹강의의 학업성취도 연구[1]로 매우 미미하며,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방송통신대학 간호학 전공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습자의 학습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를 조사하고 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방송통신대학 간호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I지역 방송통신대학 간호학 학사학위과정 3학년에 재학하며 간호사로 근무 중인 자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0명의 간호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30일 때 최소 표본 수는 11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설

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160부를 산정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12부와 부적절한 응답 및 성의 없이 응답한 설문지 6부가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여 142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민하영과 유안진[14]이 개발하고, 박성희[15]가 재구성한 도구를 김재엽 등[16]이 수정, 보완하여 10개의 문항(예: 학교 학업성적이 나빠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점수는 10점에서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김재엽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ermen[17]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ER)를 유성경과 심혜원[8]이 번안 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ER)는 총 14개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2문항), 감정통제(2문항), 호기심(5문항), 낙관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14점에서 7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이 자력성-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남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심혜원[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9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이었다.

2.3.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Rovai 등[18]이 대학생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 CAP)를 박진희 등[19]이 번안한 총 9문항(예: 나는 교재를 논리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가?)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79이었고, 박진희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I지역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출석수업기간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응답의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분석 시에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5.3세였으며, 여자가 97.9%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4.9%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47.9%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38.7%로 가장 많았고, 근무형태는 57.7%가 교대근무였다.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계발이 66.9%로 가장 많았고, 학업시간은 평균 주당 3.9시간이었다. 학업만족도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2점이었다[Table 1].

3.2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대학 간호학 전공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74±.47점(4점 만점)이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16±.43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척도는 '대인관계' 3.62±.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낙관성' 2.76±.7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성취도는 평균 3.07±.37점이었으며, 하위척도는 '심동적 영역' 3.20±.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적 영역' 3.15±.46점, '정의적 영역' 2.87±.52점 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	23-30	49(34.5)	35.32±7.64
	31-35	34(23.9)	
	36-40	24(16.9)	
	41-45	17(12.0)	
	>46	18(12.7)	
Gender	Male	3(2.1)	
	Female	139(97.9)	
Marital status	Not married	64(45.1)	
	Married	78(54.9)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5	55(38.7)	9.41±6.63
	6-10	36(25.4)	
	11-20	43(30.3)	
	>20	8(5.6)	
Type of work	Non shift	60(42.3)	
	shift	82(57.7)	
Reason of choosing Bachelor course	For Graduate school	19(13.4)	
	For Employment	3(2.1)	
	For Promotion	16(11.3)	
	For Self development	95(66.9)	
	Others	9(6.3)	
Study time (hr/per week)	<5	118(83.1)	3.92±5.39
	6-10	18(12.7)	
	>10	6(4.2)	
Learning Satisfaction	1-3	10(7.0)	6.21±1.67
	4-6	59(41.5)	
	7-10	73(51.4)	

[표 2]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 정도

[Table 2] Degree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Variables	M±SD	Min	Max
Academic stress	2.74±0.47	1.20	3.90
Ego-Resilience	3.16±0.43	2.21	4.57
interpersonal relationship	3.62±0.44	2.00	5.00
vitality	3.29±0.71	1.50	5.00
optimism	2.76±0.76	1.00	5.00
curiosity	3.02±0.59	1.40	4.40
Emotional control	3.11±0.69	1.50	5.00
Knowledge Achievement	3.07±0.37	2.11	4.00
Cognitive domain	3.15±0.46	1.67	4.00
Affective domain	2.87±0.52	1.33	4.00
Psychomotor domain	3.20±0.40	2.33	4.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나,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취업'인 경우와 학업만족도가 낮은 '1-3점'군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Knowledge Achieve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3-30 ^a	2.69±0.50	0.54	3.08±0.45	1.80	3.04±0.40	3.02*
31-35 ^b	2.70±0.42		3.10±0.45		2.93±0.28	b>e
36-40 ^c	2.84±0.60		3.18±0.37		3.11±0.36	
41-45 ^d	2.80±0.42		3.27±0.39		3.18±0.40	
>46 ^e	2.71±0.33		3.36±0.43		3.26±0.35	
Marital status						
Not married	2.71±0.45	-0.46	3.10±0.43	-1.53	3.00±0.38	-2.13*
Married	2.75±0.49		3.21±0.43		3.13±0.36	
Total clinical experience(year)						
<5	2.75±0.46	0.17	3.11±0.41	2.10	3.06±0.39	2.11
6-10	2.69±0.50		3.07±0.41		2.98±0.34	
11-20	2.76±0.48		3.28±0.47		3.13±0.38	
>20	2.74±0.34		3.26±0.35		3.29±0.31	
Reason of choosing Bachelor course						
For Graduate school ^a	2.57±0.34	1.49	3.41±0.51	3.45*	3.30±0.31	3.29*
For Employment ^b	3.17±0.71		2.83±0.57	a>d	2.93±0.56	a>e
For Promotion ^c	2.85±0.45		3.33±0.33		3.03±0.35	
For Self development ^d	2.74±0.48		3.10±0.38		3.06±0.37	
Otherse	2.74±0.49		3.04±0.64		2.81±0.32	
Study time(hr/per week)						
<5 ^a	2.74±0.50	0.07	3.12±0.41	3.83*	3.05±0.38	2.95
6-10 ^b	2.71±0.29		3.42±0.53	b>a	3.25±0.33	
>10 ^c	2.68±0.24		3.12±0.46		2.91±0.11	
Learning Satisfaction						
1-3 ^a	2.96±0.67	1.36	2.85±0.44	4.37*	2.88±0.48	5.16**
4-6 ^b	2.74±0.48		3.12±0.36	c>a	3.00±0.35	c>b
7-10 ^c	2.70±0.43		3.24±0.47		3.16±0.36	

* p<.05, **p<.01

자아탄력성은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45, p<.05$), 사후검정 결과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원 진학'군이 '자기계발'군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시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84, p<.05$), 사후검정 결과 학업시간이 '6-10시간'군이 '5시간 미만'군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학업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37, p<.05$), 사후검정 결과 학업만족도가 높은 '7-10점'군이 낮은 '1-3점'군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07, p<.05$), 사후검정 결과 연령이 제일 높은 '46세 이상'군이 '31-35세'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13, p<.05$), '기혼'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9, p<.05$), 사후검정 결과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원 진학'군이 '기타'군 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학업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9, p<.05$), 사후검정 결과 만족도가 높은 '7-10점'군이 '4-6점'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3.4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185, p<.05$), 학업성취도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88, p<.05$).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61, p<.01$)[Table 4].

[표 4]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Knowledge Achievement

	Academic stress r(p)	Ego-Resilience r(p)	Knowledge Achievement r(p)
Academic stress	1.00		
Ego-Resilience	-.185*	1.00	
Knowledge Achievement	-.188*	.261**	1.00

* $p<.05$, ** $p<.01$

4. 논의

본 연구는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는 2.74점/4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사이버대학교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19점/4점이었고[4], 학업스트레스가 높

은 의과대학생은 2.67점/4점이었[9]. 도구는 달랐으나,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2.70점/5점[20],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3.07점/5점[21]과 비교해보았을 때,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는 일과 학업, 가정을 함께 이끌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였는데[13], 본 연구 대상자의 97.9%가 여성이며, 54.5%가 기혼상태, 57.7%가 교대근무를 하는 자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장생활과 학업, 가사활동을 병행하는 학위과정 간호사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임과 이복임[13]의 연구에서 35세 이상이 15.5%, 김세은[3]의 연구에서 40세 이상이 18.2% 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이 24.7%를 차지하였다. 장년의 학습자가 증가하는 것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연령이 증가하면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16점/5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는 '대인관계가'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순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RN-BSN과 석사과정의 학업병행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심수경[2]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3.39점/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았으나, 하부영역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높고 '낙관성'이 제일 낮은 결과는 일치하였다. 김애숙[22]이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3.82점/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경[23]의 연구에서는 3.17점/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정혜[24]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3.37점/5점이었었다. 위와 같이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은 타 학업병행간호사나 간호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3.07점/5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심동적 영역'이 가장 높았고,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순이었다. RN-BSN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연구[19]에서 3.48점/5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는 3.19점/5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성취도는 타 과정의 간호학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후 원인분석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추후 반복적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명확한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업시간과 학업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원 진학'군, 학업시간이 중간인 '6-10시간'과 학업만족도가 제일 높은 '7-10점'군에서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병행 간호사의 자

자아탄력성과 근무지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심수경[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23], 성별과 연령, 교우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24].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탄력성은 증가하고, 기혼상태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반복연구를 통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연령, 결혼상태,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박진희 등[19]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업성취도는 학업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과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학업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고 자기주도적 능력이 높아진다[26]는 점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원 진학이라는 뚜렷한 학업 목표가 동기화되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나,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에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와 성취도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6][27]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와 일치하며,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취도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8]와 일치한다. 하지만 대상자 및 도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의 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학업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할 때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불안과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성취를 방해하고 중도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는 학업 방해 요소이다[4]. 따라서 방송통신대학 간호학 전공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자아탄력성,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 평균 2.74점/4점, 자아탄력성 평균 3.16/5점, 학업성취도 평균 3.07점/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탄력성은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업시간과 학업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도는 연령, 결혼상태, 학위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업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위해 궁극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 지역의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타 지역과 타 학사학위과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악한 변수 외에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수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학 학사학위과정 간호사의 학업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Y. I. Kim and T. Y. Kim, Factors affecting nurses' web-based learning achievement in schoolwork.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3), Vol.22, No.1, pp.57-65.
- [2] S. K. Shim, Ego-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 in schoolwork. Master's degree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2015).
- [3] S. E. Kim, An effects of class satisfic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e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on self-directe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 Vol.16, No.11, pp.1-10.
- [4] D. S. Yang, The effect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his/her academic stress through the medium of his/her intolerance of uncertain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2014).
- [5] H. Chow,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lastic achieve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a Canadian Prairie City. *Social psychological Education*, (2007), Vol.10, No.4, pp.484-493.
- [6] Y. J. Joo, J. W. Lee and S. Y. Cho,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valu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012), Vol.8, No.1, pp.73-92.
- [7] K. S. Kim, Y. K. Kim, Y. M. Park, and K. S. Seo, Effect of camping participation on resilience and academic stress among the juveni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Vol.14, pp.1010-1020.
- [8] S. K. Yoo, and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 Vol.16, No.4, pp.189-206.

- [9] H. H. Yoo and K. H. Park,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coping efficacy and academic stress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5), Vol.27, No.3, pp.187-193.
- [10] D. Ary, L. Jacobs and A. Razavich, Introduction to research in education (6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2002).
- [11] H. G. Kim, H. S. Sin, M. W. Seo and G. U. Hwa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ocio-cultural factors on their performance. Kore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2001), Vol.12, No.2, pp.117-154.
- [12] G. Felsten and K. Wilcox, Influence of stress and situation-specific mastery beliefs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on well-being and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1992), Vol.70, pp.291-303.
- [13] Y. I. Kim and B. I. Lee., Affecting factors on nurses' stress-coping in schoolwork.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0), Vol.19, No.2, pp.150-157.
- [14] H. Y. Min and A. J. Yoo, Development of a Daily Hassles Scale for School 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8), Vol.19, No.2, pp.77-96.
- [15] S. H. Park,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hildren's helplessness. Master's degree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Pusan, (2006).
- [16] J. Y. Kim, Y. E. Jang, and J. A. Min,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Vol.18, No.7, pp.209-234.
- [17] J. Block, and A. Ker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 Vol.70, No.2, pp.349-361.
- [18] A. P. Rovai, M. J. Wighting, J. D. Baker, and L. D. Groom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erceived 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learning in traditional and virtual classroom higher education settings.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009), Vol.12, No.1, pp.7-13.
- [19] J. H. Park, E. H. Lee, and S. H. Ba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E-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 Vol.40, No.2, pp.182-190.
- [20] N. H. Cha.,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at university lif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6), Vol.27, No.2, pp.124-131.
- [21] H. J. Choi and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chieve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 Vol.19, No.2, pp.261-268.
- [22] A. S. Kim, the relationship of hospital employee's job stress,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Master's degree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2011).
- [23] S. G. Kim, Relationship among nurses'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Master's degree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3).
- [24] J. H. Lim,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 Vol.16, No.4,

pp.2273-2284.

- [25] J. A. Cha.,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knowledge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6)**.
- [26] E. H. Lee, H. Y. Jeon & M. O. Chae, A Study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of Advanced Course for Bachelor. *Bulletin of Dongnam Health University*, **(2013)**, Vol.31, No.1, pp.1-14.
- [27] X. Xiang,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of Chinese students: The moderation effects of academic self-concept. Master's degree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3)**.
- [28] C. I. Kim and K.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achievement-oriented parenting style,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s perceived by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15)**, Vol.53, No.5, pp.503-517.